

2003 부산국제모터쇼 축하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 부산국제모터쇼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태풍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게도 많은 국민들이 자기 일처럼 복구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정부도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우뚝 서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개막된 부산국제모터쇼는 그 꿈을 실현해 가는 의미있는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세계 6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동북아 자동차 산업의 메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목표를 위해 부산·경남·울산이 한마음으로 단합하였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부산·경남·울산 지역이 동북아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

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03 부산국제모터쇼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계적인 모터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